

초등교사양성 프로그램의 비판적 성찰

서 명 석 (교육대학 교육학전공 교수)

목 차

- I. 연구의 취지 및 목적
 - II. 선 발
 - III. 양 성
 - IV. 배 치
 - V. 결 론
 - ※ 참고문헌
-

<요 약>

이 글은 현행 우리 대학의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현재적 시좌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양성 환경이 앞으로 급변할 것이라는 의기의식 속에서 우리 대학의 양성 프로그램을 반성적으로 되짚어 보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삼박한 길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에 답하는 과정이 이 글의 고동이자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제시가 우리들의 산적한 문제를 극복하는 화두의 당체이다. 그 와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방안으로 선발에서의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그리고 양성과정에서 수업능력 인증제 실시 제안이 핵심이다. 기타 자잘한 것들도 아울러 짚어둔다. 장차 변화하는 양성 환경에서 초등교사 양성기관으

로서 우리 대학이 어떻게 변신을 도모할 것인가.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문제라고 보지 않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였다.

- 비트겐슈타인

교사가 차이를 만든다.

Teachers make a difference.

- Hoy & Hoy(2009: 191)

ABSTRACT

A Critical Report on Program for Teacher Education Focused on Teachers College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eo, Myoung Seok

As is the teacher, so is the school.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gram for teacher preparation focused on Teachers College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 doubt whether teacher education program of my college serves professional growth and high-quality experience. The desire to change in the renewal of teacher education program is common. What do teacher educators who works with teacher candidates? In other words, what do teacher candidates expect about teacher educators? Our goal is to help them understand the complexities of teaching and learning so that they can make better in elementary school. What do you think? I think that focus is based on teacher competence of instructional knowledges, skills, and attitudes. The principles are expanded by

describing the knowledge, dispositions, and performance teachers are expected to demonstrate. Establishing our goal includes reforming field-based curriculum development.

I. 연구의 취지 및 목적

연구자는 제주대학교 교원양성 특별 T/F팀의 일원으로서 참여했다. 이곳에서 나는 교육대학의 교원양성에 대한 점검 및 새로운 비전 제시라는 임무를 맡았다. 이런 소산의 일부로 이 페이퍼가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 이 페이퍼의 기본적인 골격과 아이디어는 아래 각주 페이퍼와 중복되는 점을 과감히 삭제하고 차별화한 것이다.¹⁾ 이하에서 그 페이퍼에 중요하지만 빠진 부분을 중심으로 이 글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교원양성대학에 대한 개혁과 변신의 압력은 거세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 그것은 제도적인 요구이다. 이를테면 이것은 이런 것이다. 그간 교원양성은 양적인 팽창에는 성공하였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연 그러한가?” 이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신속히 긍정하지 못한다. 이와 맞물려 정부의 행정적인 압박에도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놓여 있다. 행정적인 압박은 앞으로 시행을 검토 중인 교사양성기관 평가인증제(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program_미국의 예: NCATE_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의 도입 및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런 제도의 요구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발 빠른 변신이 필요하다.

<둘>, 이것은 구성원들의 자성적 목소리이다. 그런데 목소리의 색깔이 혼탁하다. 여기서 구성원은 크게 교수집단과 학생집단으로 양분된다. 먼저, 양성대학 교수들은 양성프로그램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을까? 난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베이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1980년대 초반 교육대학이 2년제에서 4년제로 양성연한을

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특성화사업계획수립 T/F팀(2009. 10).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특성화 계획.

늘린 이후 양성프로그램의 혁신적 개혁은 없었고 기존의 틀 안에서 소폭적인 차이로
의 변주뿐이었다. 한 교육학 동료교수의 다음과 같은 목소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
다: “교대프로그램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그게 그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목소리를
체념과 꾸념의 배설로 읽어야 할까? 이것을 일단 자조의 목소리로 해두자. 한편에선
학생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들의 목소리는 자조의 톤을 넘어 비판과 불만이 섞여
나온다. 이런 목소리는 너무나 다양하여 하나의 범주로 수렴하기 곤란하다. 연구자가
이와 관련하여 3년 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딱히 배울 것이 없다.” “졸
업을 위하여 학점만 따두자.” “현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배우고 있다.” 등등등 이
런 반응들도 있었다. 이번 학기 <초등교사론> 수강 학생의 다음과 같은 목소리도 있
다: “이번 학기 매우 서글프다. 왜냐하면 3학년 2학기 매우 중요한 학기인데 건질만
한 과목이 ??과목과 ??과목으로 달랑 두 과목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
를 그대로 받아 들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감성에 기반한 호/불호의 표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고 할
대목임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학생들이 감지하는 교대프로그램 만족도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언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 페
이퍼가 가려는 목적지이자 길이다. 다시 요약해 두자. 제도를 행정적으로 개편하려는
물살이 거세다. 또한, 양성대학 구성원의 양성프로그램에 대한 목소리도 그리 밝지
못하다. 이런 당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가. 하여 해결의 단초를 찾아
떠나자. 정조의 다음과 같은 논급을 음미하면서: “갈 길은 먼데, 일의 진척은 더디고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구나.” 그러나 늦지 않았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도 잘
대비하면 되고, ‘교원전문대학원으로서의 개편’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가
운데 좋은 평가결과를 얻어내어 순조롭게 양성제도 개편의 물살에 동승하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진단과 몇 가지 처방의 메시지를 던져볼
요량이다.

II. 선 발

그전에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예화>는 모두 실화이며 연구자가 담당한 학부 수업 프로그램 수강자들의 고백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실화> 내용 보다는 이것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압축해서 읽어내는 독자의 껌냥이 필요하다.

<예화 1> 09학번 어느 남학생의 고백

...<전략>... 첫째는 점심시간에 학교식당에서 식권 바꾸니에 자신의 식권을 담는 척 하면서 역으로 거기 있는 식권을 집어오는 학생들이다. 어느 하루, 여러 교대생들과 함께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간적이 있었다. 우리는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 “야 오늘도 성공.” 나는 이 소리를 듣고 옆을 봤는데 그 학생의 손에는 몇 장의 식권이 손에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나를 더 기막히게 한 것은 그 학생이 웃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정말 머리가 핑 돌았다. 그는 교사가 된 다음에 아이들한테 웃으면서 양심적이되라고 가르칠텐데 그는 웃으면서 정작 비양심적 절도를 하고 있었다. 정말 나를 많이 안타깝게 했다. 둘째는 학교 석식 시간에 식권을 구매하는 대신 기숙사 학생들에게 키를 빌려 식사를 해결하는 학생이다. 어느 날 저녁, 석식을 학교에서 먹어야 할 일이 생겨 한 학우와 식당에 갔다. 그런데 식당에 간 순간 그 학우는 전에도 몇 번 해본 듯이 자연스럽게 기숙사생에게 키를 빌려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난 그 학우에게 물었다. “그렇게 먹으면 양심에 안 찢리세요?” 라고 묻자 그 학우가 “양심엔 찢리지만 이것을 돈 주고 사먹기는 아까워서요.” 아 정말 돈 주고 사먹기 아까우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 학우는 스스로가 비양심적인 행태를 저지르면서 자신 스스로를 합리화시켰다. 문득 이런 살인자의 말이 떠올랐다. “처음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그 학우도 이 살인자를 욕할 것이다. 이 세상은 입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언행일치하며 살아야 한다. 지금 가끔 그 학우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2009학년도 1학기 <교육학개론> 스터디 페이지 중에서)

〈예화 2〉 06학번 어느 여학생의 고백

...〈전략〉... 1학년 때 시험을 보면서 모르는 문제는 모르니까 당연히 못푼 채로 냈었다. 그 때 우리과 여러 명이 한 교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쪽지에 적어온 사람, 책상과 벽에 써놓고 보고 있는 사람, 책을 꺼내어 보는 사람, 등등. 그 날의 충격은 4학년 1학기가 지나가는 지금도 가시지 않는다. 그 때가 충격의 시작이었을 뿐 더하면 더했지..... 그리고 나서 컨닝을 한 학생과 친해질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학생이 장학금을 탔다는 것이다. 다른 학교도 아닌 교사를 지망하는 학생이 컨닝을 하는 것, 그 학생이 장학금을 탔다는 것. 뭔가 모순화된 현실이 우습기까지 했다. 그 뒤로 수많은 학생들이 내 바로 옆에서 컨닝 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때마다 '컨닝 안한 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보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인격적 완성이 아직 덜 된 '나' 이지만 최소한의 인격이라도 갖추고 나서 그때서야 아동의 인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2009학년도 1학기 〈통합교과〉 제9차 스터디 페이지 중에서)

〈예화 3〉 09학번 어느 신입생의 충고 발언

교육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내신, 수능, 논술, 면접 성적이다.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열정을 측정할 그 무엇도 따로 실시하지 않는다. 임용고사도 마찬가지이다. 교사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인성적인 면에서 측정해 줄 시험은 없다. 아무나 초등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의 의미는 초등교사가 되려면 단지 시험을 잘 치는 등의 지식능력만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교사가 되기에 충분한 인품, 사명감, 소명감 등도 갖추어야 됨을 뜻한다.(2009학년도 1학기 〈교육학개론〉 스터디 페이지 중에서)

1. 진단_문제제기

문제의 제기는 〈예화 1, 2〉로 충분할 것 같다. 그래도 좀 사족을 달아보자. 위 〈예화〉들에서 감지되는 맥락은 이러하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신입생선발장치 (screening set of teacher/teaching candidates)가 일정 부분 문제 있다는 점을 언표하

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처음부터 양질의 교사지망생²⁾을 확보하는 길은 없는가? 있다면 적어도 질담보가 최소한 되지 않은 학생들이 교육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질담보 장치가 없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니겠다. 위에서 한 학생이 말한 바대로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능점수의 점점과 형식적인 면접과정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무엇인가 2%가 부족하다는 말이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 예전에 비하여 교대생들의 인성적 질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역-플린효과 때문이다. 이 때 플린효과란 지능이론에서 부모세대의 지능보다 자녀 세대의 지능이 점점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반대로 여기서의 역-플린효과란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인성적 질이 상대적으로 더욱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2. 제안_극복으로 가는 길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는 길은 없는가? 지금까지 수시, 정시라는 경직된 입학전형방식을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 전에 다음과 같은 텍스트의 의미지평을 살펴보아야 하리라.

〈예화 4〉 전국대 입학사정관의 내러티브

올해 건국대 사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있는데 경기도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수학내신이 8등급(최하가 9등급)에 전체 내신 5등급 정도로, 일반 전형이었다면 건국대는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2) 여기서 하나의 오개념을 소개해 둔다. 우리는 관습적으로 교대생/사대생 등을 호칭할 때 “예비교사”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이 표현은 결단코 틀린 사용법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교사지망생(teacher/teaching candidates)이라고 해야 맞는다. 그럼 무엇이 예비교사(pre-service teacher)란 말인가. 그것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고용시장에서 교직이라는 직업세계에 정식으로 고용됨을 기다리고 있는(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장 학교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James F. Nolan, Jr. & Linda A. Hoover(2008). *Teacher Supervision & Evaluation: Theory into Practice*. John Wiley & Sons, Inc. p. 200] 그런 예는 또 있다. “교생실습”이 그것이다. 이것도 틀린 말이다. 여기서 교생은 교육실습이라는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신분적 주체의 개념이다. 그러니 교육실습생이 약칭 교생이다. 따라서 교생이 프로그램이 될 수 없고 교육프로그램으로써의 “교육실습”이 맞다. 우리는 하여간 너무나 생각 없이 오개념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정도로 하자. 이것은 이 페이지의 길이 아니니까 말이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개념적 몰타기를 조심하자. 장차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합부로 “예비교사”라는 호칭을 미리 선물하지 말라. 그들이 과연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가 능치게 물어볼 참이다.

하지만 국사, 세계사, 사회탐구 등에서 모두 1등급이 나와 서류전형을 통과한 후 면접에서도 뛰어난 전공 적합도를 보여 뽑았죠. 이제 한 학기가 지났는데 수강한 8개 과목 중 한 과목만을 빼고는 모두 A를 받아서 전체 평점이 학과에서 가장 높았어요. 학과대표를 맡는 등 학교생활에도 적극적이고 사학과 교수님들과는 대학원생들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요. 꿈이 국사편찬위원장이란데 일반전형이었다면 그냥 문헌을 보석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빛을 내고 있는 것이죠.(<한국경제> 2009년 9월 19일자 A23면)

연구자가 교대 신입생들의 솔직한 입학동기를 물어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부모의 권유로”, “취업이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유리하기 때문에”, “직업적 안정성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정말 초등교사가 꿈이어서 들어왔다고 말하는 학생들은 매우 적다. 이 맥락 안에 우리 입학전형시스템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좋은 인성과 훌륭한 교직 적합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재를 뽑아 들이는 전형장치의 개발을 고민해야 한다. 그 한 예로 요즈음 급부상하는 입학사정관제(system of admissions officer)가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형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질, 잠재력, 그리고 미래 발전가능성 등을 음살스럽게 평가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입시전형의 대안적 방식’이다. 실제로 상당수 일반대학에서는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이 제도로 선발하고 있으며, 교대 중에서는 진주교대가 2010년도 신입생 중 50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을 예정이다.(*광주교대도 사전 기초연구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0년부터 도입한다고 한다.) 그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하여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시행하는 절차를 개략적으로 명시해 보고자 한다.

3) 고려대 신입생 56% 입학사정관제로 선발. 고려대가 2011학년 입시에서 전체 모집정원의 절반 이상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한다. ...<중략>... 입시안에 따르면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인원이 전체 모집 정원의 55.6%인 232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후략>...(<한국경제> 2009년 11월 12일자 A14면)

〈입학사정관제 의한 학생선발 절차 예시〉

- 학생생활기록부 등의 내신평가
- 각종 서류를 통한 정성평가
- 교직 적/인성 평가
- 성장 잠재력 [=소질]과 발전 가능성, 창의성, 자신감 등을 확인하는 심층면접

3. 효과_예상하는 기대

이러한 제안은 우리가 하고 있는 선발방식을 완전히 철폐하고 입학사정관제로 가는 성급한 결단이 아니리라. 기존의 학생선발방식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제도적인 피로감—이를테면, 성적위주의 획일적인 선발, 달리 말하자면 점수 위주의 기계적 선발의 폐단—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겠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예화 1, 2〉에 등장하는 학생들이 교육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예견할 수 있다. 물론 양성과정에서 그런 학생 [=반면학생_품행도 바르지 않고 교직의 적/인성도 떨어지는 학생]들을 그렇지 않은 학생 [=정면학생_품행도 바르고 교직의 적/인성도 높은 학생]들로 가르쳐서 졸업시켜야 하는 책무를 대학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과정을 눈여겨보면 그런 학생 [=반면학생]들을 교육적으로 변화시킬만한 뚜렷한 장치가 양성대학에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여기서 나는 입학사정관제의 열광적 예찬론자는 아니다. 실제 연구자는 〈초등교사론〉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나는 교직 수행과 관련된 도저하고 웅숭깊은 교사의 길, 사명감 등을 장차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 등과 덧붙여 가르치고 있으나 글썽 효과는 늘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방식들이 나의 기대 수준을 허물어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 그래서 연구자가 입학사정관제를 제안한 것이다. 교직에 대한 긍정적 열정, 교직에 대한 높은 사명감,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여 말한다: “성적위주의 입학전형은 가라. 학생들의 질검증 장치가 조악한 전형방식의 껍데기는 가라. 도저하고 웅숭깊은 양질의 인재선발이라는 알맹이는 남고. 입시전형에서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우리가 언제까지 〈예화 3〉 같은 학생의 충고를 맥 놓고 들어야만 하는가.

Ⅲ. 양 성

이견이 다소 있겠지만 선발보다 양성교육(Preservice Education__Teacher Preparation Program)이 더욱 중요하다.⁴⁾ 내용 개진의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식상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래 대화내용을 경청해두자. 실제 내가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 제시한다.

<대화 1> 졸업생과의 대화 국면

연구자: 선생님은 졸업생으로서 교대교육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졸업생: 교대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교대에서 배운 내용이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글썄요,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네요.

<고백 1> 06학번 4학년 여학생의 녀두리

...<전략> 선배들이 하는 말 중에서 “교대에서 배운 내용은 현장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이 말에 현혹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정신 차리고 스터디 해야겠다. ...<후략>... (2009학년도 1학기 <통합교과> 스터디 페이지 중에서)

우리는 이런 두 종류의 내러티브 국면과 마주서면 힘이 빠진다. 왜 그럴까? 여기에 해결의 단초가 들어 있다. “어떤 문제 속에는 그 안에 답이 이미 들어있다”는 마르크스의 말처럼 저 내러티브 속에 이미 해답이 들어있는 것이리라. 다만 문제를 보고 답을 찾아내는 역량만이 우리에게 요구될 뿐이다.

1. 진단_문제제기

위 내러티브의 전경과 후경은 이번 학기 내 수업 <초등교사론>을 듣고 있는 한 여

4) 이 부분을 접근해 들어가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양성교육과정에 집중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지금 여건으로 방대하게 접근할 수도 없고 설사 접근할 수 있다하더라도 지면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그 일은 현재 연구자의 역량에 부치는 모험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진솔한 심경토로와 맥락에서 맞닿아 있다. 여기서 그것을 다시 환기하자면 이번 학기 많은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만 그 학생의 표현대로 건질 과목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를 보는 화두의 눈이다. 일단 각설하고 교대교육과정이 늘품 있게 발전하고 있는가? 그런데 내 주위에는 불행히도 “그렇다”라고 말하는 이가 적은 것 같다. 우리 교대교육과정도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간판을 달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것으로 09학번들이 배우고 졸업하여 초등교사로서 장차 교단에 서게 될 것이다. 개정의 골자는 이런 것이다. 교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140학점에서 150학점으로 올린 것이다. 그리고 증가된 10학점을 10개 교과(또는 각과)교육에 1학점씩 배당하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드 웨어의 팽창[140학점 ➔ 150학점]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더욱이 교과교육을 강조하여 <교과교육Ⅱ> 2학점을 3학점으로.⁵⁾ 우선 환영한다. 학생들은 학점수 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힘들겠지만 교과교육을 강조한다는 표면적인 효과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여기서 참고로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양성 프로그램을 <부록>으로 첨부해두었다. 우리 것과 대비해서 읽고 해석 및 판단하는 것은 독자의 몫으로 돌리겠다.) 그러나 교과교육의 단순한 학점 수의 증가가 곧바로 교대 재학생과 교대 졸업생들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대교육과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사라지게 만들까?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제 우리는 교과목안의 프로그램 질인 소프트웨어를 밀도 있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저런 불만과 불신의 착종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학점수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 다시 강조한다. “양보다는 질이다.” 이제는 교육과정의 질점검과 질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자는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불만을 터트리리라. 좀 기다려라. 이제부터 보여주겠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회로로 가보자. 이 말은 미국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해보고 그것들이 던져주는 현재적 메시지를 핵심잡아 간취하여 입론의 길로 삼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제도화해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점검과 질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이에 대한 기준(standards)도 없고 합의된 내용 또한 없다. 그래서 참조의 틀로 미국의 두 가지 스탠다드를 살펴 볼 것이다. 하나는 양성기준으로서의 <1> ‘NCATE 스탠다드’ 다른 하나는 초임교사 질검증장치로서의 <2> ‘INTASC(Interstate New Teacher Assessment and Support Consortium) 스탠다드.’

5) 제주대학교(2008). 교과과정. 426쪽.

〈자료 1〉 NCATE 스탠다드 일부 발췌본

* 편집상 축소하면 읽기 불편하기 때문에 다음 쪽에 제시한다. 그리고 〈자료 1, 2, 3〉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누수와 증발 현상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Program Standards for Elementary Teacher Preparation

March 7, 2000

Synopsis

DESIGN OF PROGRAM STANDARDS

*The Program Standards for Elementary Teacher Preparation** contain standards for teacher candidates as they complete an elementary teacher preparation program in an NCATE accredited school, college or department of education. The standards, detailed in Part I of this paper, are grouped in five major categories:

- development, learning, and motivation
- curriculum
- instruction
- assessment, and
- professionalism

These closely follow the ten "model standards" for teacher licensure from the Interstate New Teacher Assessment and Support Consortium (INTASC), a project of the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The INTASC models were made part of the NCATE "unit" accreditation standards in 1995. These *Program Standards* elaborate on those from INTASC for development, learning, and motivation; add detail on curriculum for the subject content of elementary teaching; and make collaboration with families a separate part of professionalism from collaboration with colleagues and the community. The intent is to align NCATE program standards with the work of INTASC and trends in state teacher licensure practices, and also to build on the moves toward the performance-based accreditation system that NCATE is developing.

The contents of these program standards for preparation of elementary teacher candidates reflect recent versions of standards for students and standards for teachers that have been prepared by national projects (such as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science standards) or education associations (such as the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standards). They differ from previous NCATE program standards in that they describe what teacher candidates should know and be able to do so that students learn, rather than what topics should be included in the teacher preparation coursework or the nature of field experiences offered to candidates.

The standards, and their accompanying supporting explanations, exhibit four

〈자료 2〉 INTASC 스탠다드

INTASC STANDARD

1. *Knowledge of Subject Matter:* The teacher understands the central concepts, tools of inquiry, and structures of the subject being taught and can create learning experiences that make these aspects of subject matter meaningful for students.
2. *Knowledge of Human Development and Learning:* The teacher understands how children learn and develop, and can provide learning opportunities that support their intellectual, social and personal development.
3. *Adapting Instruction for Individual Needs:* The teacher understands how students differ in their approaches to learning and creates instructional opportunities that are adapted to diverse learners.
4. *Multiple Instructional Strategies:* The teacher uses various instructional strategies to encourage students' development of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and performance skills.
5. *Classroom Motivation and Management:* The teacher uses an understanding of individual and group motivation and behavior to create a learning environment that encourages positive social interaction, active engagement in learning, and self-motivation.
6. *Communication Skills:* The teacher uses knowledge of effective verbal, nonverbal, and media communication techniques to foster active inquiry, collaboration, and supportive interaction in the classroom.
7. *Instructional Planning Skills:* The teacher plans instruction based upon knowledge of subject matter, students, the community, and curriculum goals.
8. *Assessment of Student Learning:* The teacher understands and uses formal and informal assessment strategies to evaluate and ensure the continuous intellectual, social and physical development of the learner.
9. *Professional Commitment and Responsibility:* The teacher is a reflective practitioner who continually evaluates the effects of his/her choices and actions on others (students, parents, and other professionals in the learning community) and who actively seeks out opportunities to grow professionally.
10. *Partnerships:* The teacher fosters relationships with school colleagues, parents, and agencies in the larger community to support students' learning and well-being.

*출처: Donald P. Kauchak & Paul D. Eggen(2007). Learning and Teaching: Research-Based Methods. Boston: Pearson, p. 22.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래 <자료 3>이 내비치는 <교사의 수업역량 모형>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정책의 지남으로 삼고 있는 현시국과 일치하는 대목이기도 하다.⁶⁾ 이것의 알짬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사에게는 수업전문성의 확보가 관건이다”라는 점이다. 앞으로 이것은 더욱 더 강조될 형편이다.

<자료 3> 교사의 수업전문성 역량 예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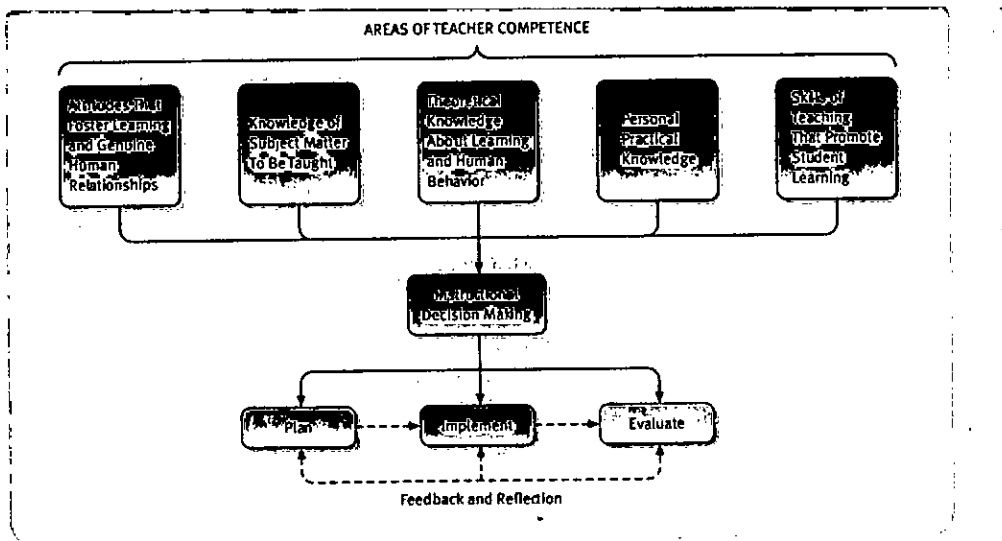


FIGURE 6.1 Relationship of Teacher-Competence Areas to Process of Instructional Decision Making

Source: James M. Cooper, ed., "The Teacher as a Reflective Decision Maker." In *Classroom Teaching Skills*, 8th ed. Copyright © 2006 by Houghton Mifflin Company. Reprinted with permission.

*출처: Kevin Ryan & James M. Cooper(2010). *Those Who Can, Teach*. Wadsworth, p. 170.

이상의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우리는 포착할 수 있다. 그것은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양성이나 검정(또는 검증) 프로그램(또는 기준)은 교사지망생, 그들이 현장의 일터 - 즉, 학교(또는 교실) - 에서 수행하게 될 일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그것에 부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길러주는데 있다는 점이다. 교대 프로그램⁷⁾에 대하여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있는 줄

6) 교육과학기술부(2009. 9. 2.).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서안).

7)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교대교육과정과 서로 호환해서 쓰인다.

업생과 학부생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시키고 나서 프로그램이 어떠했냐고 물어보면 그 때도 “배울게 없거나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대답할까? 글썄 미리 예단하긴 어렵다. 추측건대 아마 없을 것이다. 교대 졸업생과 재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대프로그램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교대프로그램의 자체적인 결함 즉 하드 웨어적인 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은 “프로그램의 질의 문제 즉 ‘(A) 소프트웨어’와 ‘(B) 현장적합성’ 사이의 간극 정도차[즉 A와 B사이의 근접성 여부]에 있다. 이것은 교육과정 개발방식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다. ① 우리는 초등교사를 양성한다.” ② 따라서 이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선정한다. ③ 그런 다음 교육내용을 조직해서 가르친다. ④ 그 후 목적에 비추어 평가한다. 이런 공식이 교육과정 이론에서 감초로서 등장하는 타일러식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이다. 우리 프로그램도 넓게는 이런 모형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런 모형이 문제-있음을 반성하고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타일러식이 먼저 ①과 같이 목적(또는 목표)를 내세우고 ② → ③ → ④ 순으로 내려가는 것[=forward design]이다. 그럼 거꾸로[=backward] 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내세우고 그것을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교육과정 설계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올해 초등 임용 교육학시험 문제로도 출제된 바 있는 ‘backward design’ 방식이다.” “전문용어를 내세우니 골치 아프다”라고 반응하지 말라. 조금만 참아라, 핵심만 짚어주겠다. 교사는 어디에서 일을 하는가? 학교(또는 교실)에서 일을 한다. 그곳에서 그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서 무슨 일을 할까? 가르치는 일을 한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수업(instruction 또는 teaching)이라 한다. 아이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할까. 교육내용을 배운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학습(learning)이라 한다. 하단 각주 해당 항을 보라. ‘백워드 디자인’이라 해놓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업의 개념쌍인 학습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가? 학습목표는 어떻게 학습활동의 평가는 또 어떻게 등에 대한 수업계획상의 의사결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백

8) 이 글에서 교사와 교원을 호환해서 써왔다. 엄밀하게 말해서 교사와 교원은 다르다. 이들은 teacher로 같다. 하지만 학술 용어(academic term)로 말하면 교사가 적절하고, 법률적/신분적 용어(legal term)로 말하면 교원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구분의 잣대가 하나 더 있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실제 가르치는 사람을 지칭할 때는 교사라 하고 교장과 교감을 포함하여 광의로 말할 때는 교원이 맞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맥락에 따라 교사/교원을 혼용하고 있다.

9) *Using specific learning objectives to frame planning decisions and making decisions about learning activities assessment during planning is a process called backward design*(Wiggins & McTighe, 2006).Donald P. Kauchak & Paul D. Eggen(2007). *Learning and Teaching: Research-Based Methods*. Boston: Pearson, p. 94.

워드 디자인' 담론은 거창하지 않다. 미세한 교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을 섬세하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타일러의 이야기가 거대담론이라면 '백워드 디자인'은 이 담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다. 그래서 별로 새로운 것도 없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새롭다. 이것이 이른바 현장중심 교육과정개발(FBCD: Field-Based Curriculum Development)이다. 이런 FBCD로 완전 무장하고 교대생을 가르쳐도 "교대에서 배울 것이 없다/배운 것이 현장에서 쓸모없다"라고 그들이 말할 리가 만무하다.

교대 졸업생과 교대 재학생들이 말하는 곧 "교대에서 배울 것이 없다/배운 것이 현장에서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틀린 말이다. 교대에서는 분명 배울 게 있다. 그리고 교대에서 배운 것이 현장에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쓸모있는 것을 쓸모없게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다.¹⁰⁾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백워드 디자인'은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연결된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소프트웨어를 현장 적합성에 맞게 바꿔주라. 이것이 '백워드 디자인'적 마인드이며 양성과정과 현장과의 연계성을 만드는 접착의 아교-끈이기도 하다.

2. 제안__극복으로 가는 길

교대는 초등교사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바른-길[正道]을 가면 된다. 미국의 두 스탠다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도 양성 프로그램이 현장의 적합성을 최적으로 담보하거나 현장과 유기적 상관력을 갖도록 쇄신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료3>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 역량[=teacher competence of instructional knowledges, skills, and attitudes ◀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3>을 참고하면 된다.]을 양성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길러주면 그것이 바른-길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너무 나이브할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말해볼까 한다. 이에 관한 밑그림을 대략 세 가지로 그릴 수 있다. 이하 이틀 속에서 진행한다.

10) 이 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쓸모없게 가르친다는 지나친 표현 보다는 보다 누그러 뜨려 현장과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가르치는 것으로 급수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여간 행간의 메시지는 전달한 것으로 보겠다.

① 교과 프로그램

■ 수업능력 인증제 도입

〈수업능력평가(안)〉

1. 사전평가_수업전 평가

- 서류평가_수업지도안, 수업에 관한 각종 포트폴리오 등

2. 과정평가_수업중 평가

- 수업실연평가

3. 사후평가_수업후 평가

- 수업동영상평가
- 면접평가

[* 각 단계마다 질적/양적 평가를 병행한다.]

현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중에서 공주교대와 전주교대가 형식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이것을 시행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교과교육프로그램(교과교육 I·II)과 연대하는 방식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로 수업능력평가단을 구성하여 이 기구를 중심으로 실습과 연계시켜 운영하는 것이다. 아니면 두 가지를 결합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 하여간 “교사의 수업전문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양성프로그램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임에는 틀림없다.” 그래도 믿기 어려우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정독해 보라: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09. 10. 27.)」

② 교과외 프로그램

■ Best Honor Student Award제 실시

매년 학교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정면학생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이 제도가 교대생들에게 수상 학생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귀감이 되는 역할-모델(role-model)을 설정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사회적 모델링 제공을 통해서 학교가 직접 나서서 교대생 인성의 질저하에 따른, 즉 역-플린효과에 대한 일종의 학교차원 정풍(整風) 운동을 해나간다.

■ 인격수련 프로그램 의무 이수제 도입

이것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정하는 해당 프로그램을 미리 지정해 준 뒤 이것을 이수하고 그 이수증을 학교에 제출하도록 한다. 그 한 예시로 마음공부 프로그램, 피정 프로그램... 등등등. 반드시 졸업 전에 60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부과한다. 이것은 반면학생에게는 인격정화프로그램이다. 반면 정면학생에게 이 프로그램은 더욱 더 성숙한 인격을 갖도록 공헌할 것이다.

③ 기타 프로그램

■ (가칭)교육실습 임상지도위원회 상설기구화

이렇게 별도로 뽑은 것은 양성대학에서 교육실습은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것에 대한 질점검과 질관리가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는 실습학교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실습을 잘 해 줄 것을 희망하는 수준이다. 일전에 연구자의 제안으로 우리 학교는 총 교육실습기간이 8주에서 10주로 늘어났다. 이렇게 기간연장이 되었지만 실습의 질도 동시에 늘어났는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차제에 실습전담기구를 상설로 두고 이곳에서 실습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지도하는 체제를 제안한다. 여기서 실소를 자아내는 '실습해프닝'을 하나 소개해 둔다. 지난 봄 학기 동료교수가 부설초등학교 ○학년 ○반에 실습 지도차 나갔다가 왜 자기 반만 유독 교수들이 자주 방문하느냐고 말하며 담임교사가 방문교수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다. 이것은 희극을 넘어 비극적인 사건이다. 굳이 풀어보자면 이것은 양성대학과 실습학교 간의 유기적 협력의 창구가 단절되었거나 완전히 막혀 있다는 방증이다. 양성대학에 속해있는 부설초등학교는 대표적인 PDS¹¹⁾(Professional Development School_이것은 교사지망생들에게 임상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의 전문적 역량을 체험적으로 습득시키려는 실험학교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대학은 부설학교의 실습생 수용능력 한계로 두

11) Professional development schools(PDS): schools that have formed partnerships with a college or university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schools and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Activities at a PDS may include collaborative research, team teaching, demonstration lessons by teacher education faculty, and various professional growth opportunities for teachers and teacher educators.[Forrest W. Parkay & Bevery Hardcastle Stanford(2004). *Becoming A Teacher*(6th ed.). Boston: Pearson Allyn and Bacon. p. 534.] * 밑줄은 연구자의 강조임.

개의 대응학교를 두고 있다. 광의로 보면 이들도 역시 PDS로 볼 수 있다.)이다. 이곳에서 실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사지망생들에게 PDS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문성의 신장(PD__Professional Development)’을 체계적으로 해주고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비책을 세워야 하리라.

3. 효과_예상하는 기대


나는 지금까지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중대한 결함을 양성과 현장 간의 괴리에서 찾았다. 그리고 괴리의 목소리를 교대 졸업생과 재학생의 심경 토로로 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 교사양성 프로그램이 어떻게 정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결의 실마리는 먼데 있지 않다. 이미 앞 절에서 제안해 두었다. 다시 반복하자면 교사지망생에게 장차 학교(또는 교실)에서 수행할 그들의 일과 관련하여 아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적인 역량(Competence)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로 교과프로그램이 나아가면 족하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또 다시 물을 것이다.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컴-피-턴-스가 뭐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것은 INTASC 스탠다드 10가지 원리를 약탕기에 함께 넣고 찌서 나온 화합물입니다(Ornstein & Levine, 2008: 22 참조).” 부연하자면 이렇다: “The principles are expanded by describing the knowledge, dispositions, and performance teachers are expected to demonstrate(Kauchak & Eggen, 2007: 21).” 이 틀 안에서 교사의 질은 결국 교사 컴-피-턴-스의 질로 결정된다. 그 중에서도 컴-피-턴-스의 핵은 수업전문성이다. 수업전문성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자료 3>을 다시 참조하라. 이것으로도 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아래 책에 도움을 청하면 되겠다.¹²⁾

교대프로그램은 ‘수업전문성’을 축으로 돌아가야 맞다. 다시 말해 교대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길러주고, 수업전문성의 질(또는 수준)을 제도적으로 판별해서 인증해주고, 그 다음 인증받은 인력을 교단으로 내보낸다. “아! 이상적인 시나리오구나.” 이대로만 된다면 효과 만점이다. 그것의 효과를 더 이상 너절하게 논할 필요가 없다. 이속에서 PDS의 역량강화(empowerment)는 필수적이다. 이것도 후속 기대 논의가 필요 없다. 현재 정부가 이 사안을 얼마나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지 보자.

12) David A. Jacobsen, Paul Eggen, and Donald Kauchak(2009). *Methods for Teaching*(8th ed.). Boston: Pearson.

〈자료 4〉 교과부 해당 보도자료

★ 10월 2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1 style="margin: 0;">보도자료</h1> <p style="margin: 0;">2009. 10. 27.</p>	 <p style="margin: 0;">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p>
	<p style="margin: 0;">홍보담당관실 ☎ 2100-6575</p>

〈자료문의〉 ☎02-2100-6497 학교운영지원과장 안명수, 02-2100-6688
교직발전기획과장 나향욱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로 교실수업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 교과부,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발표
- 정책자문협의회, 교육현장 의견수렴, 권역별 토론회 등을 거쳐 확정

교사의 양성과 임용, 연수 등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지원하여 교실수업의 개선을 통한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는 교단 풍토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이같은 내용의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을 10월 27일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지난 9월 3일 발표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에 대한 4대 권역별 토론회(9.3~15)*, 교육현장 의견수렴(9.23~9.28)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한 것이다.

* 영남권(부산, 9.3), 충청권(대전, 9.8), 수도권(서울, 9.10), 호남권(광주, 9.15)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세부 추진 방안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1. 수업능력 평가 중심의 교사 임용과 양성제도를 개선한다.

- 교과부는 교원양성 단계부터 체계적인 질적 관리를 통하여 교육현장에 적합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원양성기관의 평가를 강화하며
 - 장기적으로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중심의 평가인증체제로 전환하고 상시평가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 수업능력 평가 중심의 교사 임용을 위하여 임용시험 체제를 개편하여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교직적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된다.
 - 임용시험시 수업실연 배점을 확대하고 필기중심의 시험체제를 개선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임용관련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을 강화하게 된다.
 - 임용시험의 1차 시험은 배수내 통과여부 판단으로만 활용하며, 합격자는 다음해 실시하는 시험에서 1차 시험 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범계학과, 교직과정 설치학과와 복수전공을 확대하여, 교원임용시 인사운영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고, 복수전공자와 부전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 수업 잘하는 우수교사를 인증하여 수업전문성을 신장시킨다.

- 수업장학 등 학교단위 수업 전문성과 집단적 교육성과를 고양하기 위하여, 교원 성과상여금 지침에 학교단위의 집단적 성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 별로 세부 방침에 따라 자체 운영하게 된다.
- 또한, 시·도 교육청별 특색있는 우수교사 인증제 확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교사 인증을 받은 교사에 대하여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과학교과의 우수 교사 인증제인 'TSE(Teaching Science by Experiment)'를 추진하여 학교 현장의 실험탐구 수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시·도의 다양한 우수교사 인증제를 공모하여 심사, 확산할 계획이다.

3.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한다.

- 교사들이 교수·학습지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정업무와 국회 자료제출 요청 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 단위학교내 행정업무 처리 전담모형을 개발하고, 전담모형에 따른 시범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 국감 등 국회 자료요구 관련, 교육통계 자료 중심으로 '국감자료공유 사이트'를 개설하여 기 구축된 통합DB에 대한 검색기능과 외부 정보DB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업무를 경감시키게 된다.

- 한편,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를 확대하여, 시·도 교육청별 순회교사 운영 목표제와 순회교사 순환제 등을 실시하고,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향후, 전교사에 대하여 학기별 2회 이상 수업공개를 실시하고, 수업공개 시간과 공개형태를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동료교사 및 전문가의 수업 컨설팅, 수업클리닉 등 평가보다는 지원 개념에 중점을 두게 된다.

붙임 :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 이것은 보도자료 전문을 그대로 제시한 것이다.)

이 자료를 읽으면 정부의 정책방향도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양성방향도 그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한쪽을 놓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예화 1, 2>에서 보여주는 문제점들이다. 그래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BHSA제도와 인격수련프로그램 의무이수제를 제안해 두었다. 각각의 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앞에서 이미 논급했기에 생략한다.

IV. 배 치

배치는 엄밀하게 말하면 임용이다. 하지만 대학은 초등교사 임용권이 없기 때문에 교대졸업생을 학교 현장, 즉 교단에 입문(induction)시키는 과정에 밀도 있는 서비스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에 합당한 표현을 찾다가 배치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초등임용고사 합격률이다. 최근 3년간 우리 학교의 임용고사 합격률은 졸업예정자 대비 '09년 62%, '08년 65%, '07년 47%였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하여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합격률을 쉽게 낙관하기 어렵다. 졸업생의 진로와 취업 지도의 차원에서 학교는 재학생에 대한 집중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대학 같이 해당 직원의 겸직 형태가 아니라 전담부서의 신설, 행·재정적 정비 등을 통하여 임용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 정보 제공, 기타 임용 대비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서울교대는 대학생활문화원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그곳에서 취업과 진로에 대한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 학교는 임용과 관련하여 사이버 강의 지원, 임용고사 대비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들로는 미약함으로 더욱 보완이 필요하다.

V. 결 론

“교사가 차이를 만든다.” 이것이 이 글의 서두에서 던진 로고스[logos·진리]이다. 이것을 좀 더 가공해서 말하면 양성 프로그램의 질이 교사의 차이를 만든다는 점이다. 교육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교사를 만들고 싶으면 양성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주면 된다. 너무 진부한 결론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내부를 밀도 있게 관찰해 보라. 그리고 나서 찬찬히 뜯어보라. 진정 프로그램 질이 있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하의 글을 읽지 말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더 “교사가 차이를 만든다”라는 로고스를 화두 같이 끌어안고 심중에서 숙고해 보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말이다. “우리는 진정 훌륭한 인재를 뽑아들이는데 성공하고 있는가?” “뽑아들인 인재들에게 정말 전문성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 인재들이 졸업 후에 제 때에 실패 없이 교단에 성공적으로 입문하고 있는가?” 등등등. 이런 물음에 답하는 여정이 이 글이 달

려운 코스였다. 아니면 “교사자격증을 최소한의 질 담보 없이 공장처럼 찍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물음을 반성하면서 말이다.

교육학 용어 중에 “기본에 충실하라”는 명제가 있다. 이른 바 “Back To The Basics!” 원래 이것의 맥락은 아동중심이라는 진보주의 방식으로 교육을 시켰더니 아이들의 기본적인 학습능력인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능력(Basics)이 현격하게 떨어지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기초 학습력을 다시 기르도록 하자라는 본질주의자들의 주장에서 BTB가 나왔다. 하여간 기원의 맥락은 그렇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교사양성의 문제를 다시 보라는 주문이 이것이다. 제대로 된 교사지망생을 뽑아 들이자. 그리고 수업 잘하는 교사를 양성하자. 국가가 그렇게 주문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이것은 과거에도 진리였고 현재에도 진리이며 미래에도 아마 진리일 것이다. 이름 하여 이것은 “절대 진리!”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수업능력인증제등을 제안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특성화라 하여 쓸데없는 사업으로 변죽을 울리지 말고 바로 정곡을 찌러라. 아니 촌철살인하라! 이 글을 다 읽은 정책실행자들에게 각종 사업에 헛투자 하지 말고 투자자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무엇이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한 사업인지 다시 묻는다. 이 페이지에서 제안한 사업을 실행에 옮기려면 돈이 별로 안 들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입학사정관제와 수업능력인증제와 같은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다. 그래도 하겠는가? 만약 한다면 이것은 우리 대학의 양성기능의 질을 한층 격상시키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특별히 새겨둔다, 여기에다.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속이 팍 찬 모든 알맹이는 남고 허섭한 모든 껍데기는 가라.”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10. 27.).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확정안).
- 교육과학기술부(2009. 9. 2.).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시안).
- 길양숙(2009). 기준(Standards) 기반의 교사교육 사례. 한국교육과정학회 12월 월례 발표회자료.
- 이규석(2009).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방안. *교육개발*, 36(4), 22-25.
- 정혜영(2010). 종합대학교의 초등교사 양성 현황과 과제.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세미나자료집, 1-5.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특성화사업계획수립 T/F팀(2009. 10).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특성화 계획.
- 제주대학교(2008). 교과과정.
- Hoy, A. W., & Hoy, W. K.(2009). *Instructional leadership(3th ed.)*. Boston: Pearson.
- Jacobsen, D. A., Eggen, P., & Kauchak, D.(2009). *Methods for Teaching(8th ed.)*. Boston: Pearson.
- Kauchak, Donald P., & Eggen, P. D.(2007). *Learning and teaching: Research-based methods(5th ed.)*. Boston: Pearson.
- NCATE Standards(2000).
- Nolan, J. F. Jr., & Hoover, L. A.(2008). *Teacher supervision & evaluation: Theory into practice(2nd ed.)*. John Wiley & Sons, Inc.
- Ornstein, A. C., & Levine, D. U.(2008). *Foundations of education(10th ed.)*. Wadsworth.
- Parkay, F. W., & Stanford, B. H.(2004). *Becoming a teacher(6th ed.)*. Boston: Pearson Allyn and Bacon.
- Ryan, K., & Cooper, J. M.(2010). *Those who can, teach(12th ed.)*. Wadsworth.

<부록 1>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프로그램 자료 1

(*자료 1, 2는 이것의 원저자인 이화여대 정혜영교수의 사용 허락을 사전에 받은 것임.)

초등교육과 교육과정			
분류	구 분		
교양 필수 (27)	15	기초	우리말과 글쓰기, 기독교와 세계, 대학영어, 고급영어, 제2외국어
	12	핵심	7개 중 4개 영역 선택 : 각 영역별 1과목(3학점)씩 총 12학점
전공 기초 (23)	9	공통 필수	교육실습 I/II, 특수교육의 이해, 교육현장의 이해 (전공기초 공통선택에서 공통필수로 변경)
	14	공통 선택	교육학개론,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상담 및 생활지도 (9과목 중 7개 선택)
전공 (57)	9	필수	초등 교과교육론, 초등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초등 교과 논리 및 논술 (신설)
	48	전공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 (10), 기타 전공과목 선택
자유 선택	28	전공, 교양, 타전공 등 자유선택	
<p>◎ 졸업 최소 이수학점: 135학점</p> <p>◎ 교원자격증: 1.9 / 4.3 이상 학점 취득해야 함</p>			

◎ 전공 교과목

학년	학점	교과목명	학 년	학 점	교과목명	
						1
1	3	아동발달과 교육	1	3	초등학교 학급문화 및 경영	
2	3	초등컴퓨터 교육	2	3	초등국어교육방법	
2	3	초등국어기초이론*	2	3	초등사회교육방법	
2	3	초등사회기초이론*	2	3	초등과학교육방법	
2	3	초등과학기초이론*	2	2	초등음악교육 및 실기*	
			2	2	초등미술교육 및 실기*	
전 공 과 목	3	2	초등실과교육*	3	3	통합교육과정* *(09부터 교사 자격증 표시 과목으로 변경)
	3	3	초등교육과정	3	3	초등수학교육방법
	3	3	초등수학기초이론*	3	3	초등영어교육방법
	3	3	초등영어기초이론	3	3	초등종교 및 도덕교육방법
	3	3	초등종교 및 도덕기초이론			
	4	3	창의성교육방법	4	3	다문화교육의 이론 및 실제
	4	3	학급경영	4	3	초등교육행정 및 경영
	4	3	아동문학	4	3	열린교육의 이해
	4	3	아동과 가족관계 이해	4	3	사후교육실습
	학/석사 연계과목 (3학점)					
아동의 도덕성 및 사회성 발달 연구		학교변화와 학교중심책임경영		초등수학교육연구		
교수학습이론 및 모형 연구		초등교육과정 구성 및 개발		교사교육연구동향		
<p>*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 관련이수 교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육방법: 4과목 중 2과목 필수 (4과목중 3과목 에서 변경) - 초등 종교 및 도덕 기초 이론, 교육방법 중 1과목 이상 필수 - 초등 영어 기초이론, 교육방법 중 1과목 이상 필수 						

〈부록 2〉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프로그램 자료 2

초등교육과 전공 교과목: 전공필수(9) + 전공과목(48)

학년	학점	교과목명	학년	학점	교과목명
1	3	초등교육론	1	2	초등체육교육 및 실기?
1	3	아동발달과 교육	1	3	초등학교 학급문화 및 경영
2	3	초등교과 논리 및 논술(필수)	2	3	초등국어교육방법
2	3	초등국어기초이론★	2	3	초등사회교육방법
2	3	초등사회기초이론★	2	3	초등과학교육방법
2	3	초등과학기초이론★	2	2	초등음악교육 및 실기?
2	3	초등컴퓨터교육	2	2	초등미술교육 및 실기?
3	3	초등교과교육론(필수)	3	3	초등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필수)
3	3	초등교육과정	3	3	초등수학교육방법
3	3	초등수학기초이론★	3	3	초등영어교육방법
3	3	초등영어기초이론	3	3	초등종교 및 도덕교육방법
3	3	초등종교 및 도덕기초이론	3	3	통합교육과정★
3	2	초등실과교육?			
4	3	창의성교육방법	4	3	다문화교육의 이론 및 실제
4	3	학급경영	4	3	초등교육행정 및 경영
4	3	아동문학	4	3	열린교육의 이해
4	3	아동과 가족관계 이해	4	3	사후교육실습